

# 장수 누리파크 놀이센터 첫 삽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

### 사계절 발물 놀이장·모험 놀이터 등 조성·어린이 생활 문화센터도 건립

장수군 누리파크에 가족·어린이를 위한 체험 놀이센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 누리파크 놀이센터는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돼 2,960㎡의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 놀이센터는 사계절 발물 놀이장(기구 17종), 모험 놀이터(기구 7종)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험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놀이 시설물은 장수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오미자, 토마토 등 레드푸드 컨셉으로 꾸며지며, 물놀이장에는 사과 타워 놀이대, 쪼개진 사과 미스트 터널, 질린인, 토마토 점핑놀이 등 시설이 들어선다.

누리파크 안에는 놀이 센터와 함께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관광자원 개발 분야에 선정된 어린이 생활 문화센터도 조성된다.

어린이 생활 문화센터는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돼 약 990㎡ 규모의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영유아 놀이터, 작은 도서관, 각종 특화 시설 등이 건립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언택트 여행지 조성과 가족 단위의 체험형 여행을 위해 카리반 및 데크아일랜드, 자연놀이터, 야간 경관시설, 그늘 쉼터 등도 새



장수 누리파크 체험 놀이터 물놀이장 조감도.

롭게 단장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북도 동부권 발전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누리파크 체험 놀이센터 조성을 통해 군은 어린이 여가 및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 충족을 통해 젊은 인구의 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학교를 벗어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린이들의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활용

돼 교육자원의 다양화 및 어린이 생활 문화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 누리파크에 어린이 시설 조성으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부모들을 위한 가족 중심의 문화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예산사업·K-뉴딜 사업예산 확보 위한 추진상황 점검

진안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예산사업과 뉴딜사업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11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예산사업과 K-뉴딜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61개 사업 총사업비 3,040억원 확보에 총력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95억원), ▲K-홍삼 D.N.A. 혁신 플랫폼 구축(300억원),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79억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건립(200억원), ▲진안군 도시재생뉴딜사업(250억원) 등 5개 사업을 중점확보 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군은 지역현실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이달부터 4월까지 본격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맞춤형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나혜수 부군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달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무주군, 사과 분양단지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

무주군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내 사과 분양단지 사과나무를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한다고 11일 밝혔다. 보다 나은 품질의 반딧불 사과를 도시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갱신할 단지 규모는 2ha 규모로 후지와 홍로, 우리품종(아리수) 등을 갱신해 지난달 착공, 현재 2개 구간 발목과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을 마쳤다. 내년에 사과 우수품종으로 식재해 5년 정도 재배 관리 후 도시 소비자들에게 분양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나무 수령은 15년 이상인 노목 상태로 사과 품질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무주 반딧불 사과는 고령지에서 재배되고 있어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로 명성이 높으며, 올해 1월에 시작한 사과나무 분양은 3월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군정 발전 유공자 4명에 감사패 수여

진안군은 11일 군수실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불우소외계층을 도운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유공자로 ▲추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 ▲진안을 김해자 헤어스타 원장 ▲동향면 양곡원 새마을부녀회장 ▲신숙진(정천면 무거마을)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추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노인 가구의 축대를 보수, 동절기 난방취약가구에 빨간 지원봉사에 나섰고, 진안을 김해자 원장은 33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오면서 미용장을 취득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미용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동향면 양곡원 새마을부녀회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와 독거노인을 수시 방문해 돌봤고, 정천면 무거마을 신숙진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말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해 소외계층을 위해 쓸 수 있게 도와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장수군은 11일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17대, 전기화물차 46대 등 총 63대며, 현재 환경부의 인증 받은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해 전기승용차 2대, 전기화물차 5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분은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량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 접수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을 소지자면 가능하며, 이달 24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철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확보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장수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내수면어업 기반 구축·집중 육성

진안군은 내수면어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어가소득 증대 및 어족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올해 10개 사업에 7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북도와 협력하여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용담댐 및 하천이 많은 진안군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어도개보수, 어선 선착시설 설치, 어선 트레일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지역의 우수자원을 활용한 체험객 유치 및 소득기반 창출 사업으로 최대 70억 규모의 강마을 재생(공모)사업 추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용담호의 어족자원을 육성하고,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외래어종 수매 등 4~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매년 확보하고 있으며, 무허가 어로행위와 자원남획 등 불법 어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어업계연합회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과 어업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용담호라는 우수한 자연조건을 가진 진안군 내수면어업의 발전 가능성은 지대하며, 여러 사업들을 통해 어업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수족자원을 육성하여 내수면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맞춤형 조리기술 컨설팅 사업 추진

### 일반음식점 대상 희망업소 추천 받아 최종 5곳 선정기로

무주군이 골목식당의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맞춤형 조리기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4월까지 읍·면을 통해 컨설팅 희망업소 12개소를 추천 받아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위탁계약 기관에서 현장 방문, 사업 추진 의지, 변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업소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일반음식점과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 또는 체인점 형태의 업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은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기존 메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조리실습 교육과 계량화 된 레시피 전달, 보수교육, 12월중 품평회를

하는 등 음식별별 현장중심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 연구와 함께 양질의 재료 사용, 양념 계량화, 조미료 최소화 등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해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만의 경쟁력 있는 음식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백신접종 완료

진안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고위험 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 의료인, 코로나19 대응요원 및 119구급대원 등 186명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했다.

군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온도 유지와 콜드 체인 등 접종 준수사항을 철

저히 지키며 지침에 따라 접종 동의자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였고 접종 후 15~30분 대기 장소에 머무르게 해 이상반응 상태를 관찰하고 귀가 시켰다.

이번 백신 접종은 지난 6일에 2차로 백신을 공급받아 대상자 263명 중 동의자 1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은 앞서 지난달 25일 1차 백신을 공급 받아 2일부터 요양시설의 만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 123명(95.4%) 접종을 완료한 바 있다. 접종자들은 접종부위 붓종과 약간의 미열 두통 등을 호소했으나 특이사항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